

블랙핑크, 북미 투어로 20만명 만나...지수·카베요 합동무대

LA 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서 현지 투어 북미 7개 도시에서 총 14회 공연으로 전석 매진

“블랙핑크의 재능과 스타성이 발휘되는 순간 모든 아레나를 ‘셧 다운(Shut Down)’시킬 수 있다.”(미국 빌보드)
K팝 간판 그룹 ‘블랙핑크’가 월드투어의 출발점인 북미 공연을 성료했다.
2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지난 19~2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규모 야외 공연장인 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월드 투어 ‘본 핑크(BORN PINK)’를 열고 양일간 총 4만7000명을 만났다.
이에 따라 블랙핑크는 이날까지 북미 7개 도시에서 14회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총 20만 관객을 불러 들였다. 앞서 댈러스,

휴스턴, 애틀랜타, 해밀턴, 시카고, 뉴저크를 돌았다.
특히 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무대는 북미투어의 마지막 공연인 만큼 팬들의 환호로 가득했다고 YG는 전했다. 스타디움 규모에 맞게 화려한 연출이 주를 이뤘다.
특별한 인물들도 대거 함께했다. 19일 공연에서 지수가 쿠바 태생의 팝스타 카밀라 카베요 ‘라이어’를 커버하는 무대에선 원곡자인 카베요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합동 무대를 펼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객석엔 셀레나 고메즈, 어셔, 올리비아 로드리고, 그레이시 에이브람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비롯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대표 레이블 인터스코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블랙핑크의 남다른 글로벌 위상을 실감케 했다.
블랙핑크는 지난 북미투어 여정을 되돌아 보며 팬들과 가슴 벅찬 감동을 나눴다. 멤버들은 “이번 북미 투어의 첫 스타디움 공연이었다. 오늘 밤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우리 블링크에게 정말 고맙다. 덕분에 오래 간직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며 “오늘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시 만날 훗날을 기약했다.
북미 투어 종료 직후 미국 현지 유력 외신은 앞다퉀 이번 콘서트의 성과를 빠르게 전했다. 바라이어티는 “블랙핑크의 정체성이 모든 히트곡 사이에 촘촘히 얽혀 있었다. 사랑스러운 달콤함부터 강렬한 카리스마, 이들의 그룹명처럼 상반된 매력을 모든 무대에서 느꼈다”고 호평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11월 30일~12월 1일 영



국 런던, 12월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달 8일 독일 쾰른, 11~12일 프랑스 파리, 15일 덴마크 코펜하겐, 19~20일 독일 베를린, 2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핑크빛으로 물들인다. 블랙핑크는 이번 월드투어로 150만 명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이승기 소속사 대표, ‘음원정산 0원’ 노예설에 “회피 않겠다”



후크에 18년간 몸담은 소속 연예인

음”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현재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정리 단계인 점과 앞으로 법적으로 다루질 여지도 있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면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추후 후크엔터테인먼트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의 연예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분들께 더 이상의 심려를 끼쳐드리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승기가 지난 18년 간 27장의 앨범을 내는 동안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과 관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내 여자라니까’로 데뷔한 이승기는 이 곡이 히트하면서 바로 스타덤에 올랐다. 최근엔 배우 활동에 힘을 쏟고 있으나 ‘삭제’ ‘결혼해줄래’ ‘되돌리다’ ‘하기 힘든 말’ 등 한동안 히트곡을 연이어 냈다.
디스패치는 후크의 유튜브 채널 별 이승기 음원의 정산 내역서를 입수했다며 2009년 10월~2022년 9월 동안 후크가 96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승기의 대표곡 ‘내 여자라니까’ ‘삭제’ 등이 발표된 2004년 6월~2009년 8월의 회계 장부가 유실, 여기에 해당하는 5년 치를 제외한 내역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승기는 지난 18년간 27장의 앨범, 137곡에 대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선 ‘이승기 노예 계약설’이 계속 퍼지기도 했다. 디스패치는 이승기가 내용증명을 보낸 후 후크 A이사로부터 권 대표가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라며 격노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보도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후크의 간판과 같다. 데뷔 때부터 이곳에만 몸 담았다. 지난해 1인 기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립을 선언했다. 약 한 달만에 후크와 다시 계약하기도 했다. 작년 이승기가 회사를 나가려고 시도했던 이유가 정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후크는 최근 연이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0일 서울 정담동에 위치한 후크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후크 소속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 강중현 씨가 있던 상감사 3곳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 짓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배경엔 일부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영진이 권 대표라는 설도 나왔다.
또 최근엔 해당 회사의 간판 배우인 윤여정이 회사를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후크는 바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회사에는 배우 이서진, 가수 이선희 등도 소속돼 있다. 이 회사 홈페이지는 최근 잇단 논란에 일일 트래픽 초과로 매일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송인 박수홍, 친형 혐의 부인에도 의연



방송인 박수홍의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친형 부부와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가 모두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박수홍 측은 예상했다며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22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날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남편인 박모 씨와 함께 박수홍의 돈 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법원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법원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열린 보수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도 김 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측은 두 사건 모두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서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수홍 측은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박수홍이 안정된 생활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겪기도 했으나, 아내와 반려묘 다옹이 등 자신을 위로하는 새로운 식구를 만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상태라는 전언이다.
자신의 주춧돌인 요리 실력을 살릴 수 있는 KBS 2TV 음식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도 새롭게 출연 중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MBN 예능 ‘동치미’에도 12월 중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박수홍의 아내 김다에 씨도 김 씨의 재판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는데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한탄해 한숨을 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관계자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에 매진하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재판에도 당당하게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아내인 다에 씨 역시 그런 박수홍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직접 재판을 방청하며 상황 파악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MMA2022’ 최종 라인업 공개...르세라핌→고막소년단

올 한 해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가수들이 ‘멜론뮤직어워드2022(MMA2022)’에 총출동한다. 카카오편터엔터테인먼트의 뮤직플랫폼 멜론(Melon)은 22일 ‘멜론뮤직어워드2022(MMA2022 Presented by 카카오편터엔, 이하 멜론뮤직어워드)’ 전 출연진 라인업을 공개했다.
멜론뮤직어워드는 임영웅, 몬스타엑스, (여자)아이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아이브, 뉴진스 등 경쟁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공개한 가운데 르세라핌, 스테이시(STAYC), 심센치(10CM), 멜로망스, 비오, 고막소년단이 새롭게 출연을 확정했다.
올해 르세라핌은 데뷔곡 ‘피어리스(FEARLESS)’부터 최근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친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르세라핌의 첫 시상식인 만큼 무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본에서 정식 데뷔한 스테이시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멜론뮤직어워드에서 원더케이 오리지널 콘텐츠상을 수상한 스테이시가 올해는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명품 OST와 ‘그라데이션’ 등으로 활동한 음원강자 심센치(10CM)도 출격한다. ‘정이

오는 26일,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



라고 하자, ‘딱 10CM만’ 등을 통해 심센치와 호흡을 맞춘 빅나티(BIG Naughty, 서동현)도 출연을 확정지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두 사람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카운팅 스타(Counting Stars)(Feat. Beenzino)’로 스타덤에 오른 비오(BE’O)는 데뷔 후 처음으로 멜론뮤직어워드 출연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고막 남친들의 만남으로 주목받은 ‘고막소년단(폴킴, 김민석, 정승환, 하현상, 빅나티)’는 멜론뮤직어워드를 끝 보이스로 장식할 계획이다.
한편, MMA2022는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다채로운 장르와 색깔을 담은 무대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재벌집 막내아들’ 팝업 스토어 열기 이어가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연출 정대윤, 극본 김태희·장은재) 팝업스토어가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팝업 스토어 ‘재벌집 막내아들의 방’은 성수동 서울숲 카페거리에 있는 체험 공간이다. 순양그룹 비밀을 드라마 팬들이 경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오픈한다.
외부에는 4.5m 높이 송중기 배우 간판과 진양철 회장 흉상을 만나볼 수 있다. 내부는 포토존, 전시공간, 이벤트 부스로 구성됐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송중기 배우가 녹음한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할 수 있다. 포토존에서는 순양그룹의 구성원들이 합성된 가족 사진도 제공한다. 전시 공간에서는 실제 드라마 소품을 감상할 수 있다. 권총, 진양철 회장 비망록 등 드라마 주요 소품들이 준비 돼있다.
JTBC 마케팅팀은 “단순히 드라마 시청을 넘어 드라마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개관 4일 만에 1100여 명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며 “오픈 첫날엔 송중기 배우도 직접 찾아와 공간을 둘러보기도 했다. 송중기 흔적을 찾아보는 재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순양 그룹 일가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윤현우’(송중기)가 순양가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승계 전쟁에 뛰



어드는 이야기다. 매주 금·토·일 오후 10시 30분 방송.